

하느님과 함께 한 아름다운 삶

신현주
발바라

(성모병원 원목수녀)

62세 된 이 엘리사벳씨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로 항상 그림자처럼 옆을 지켜봐 주는 사랑하는 남편과 출가한 지 7년이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외동딸을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며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모두 하느님께 바치신 분이다.

내가 이 분을 처음 만난 것은 2년 전쯤 봄! 본당 수녀님으로부터 기도부탁을 받고 12층 병실을 찾았을 때 이미 항암치료를 받게 된 지 5차례가 지난 후였으므로 환자의 모습은 머리가 다 빠지고 피부는 거칠게 보였으며 혈색이 없어 보였다. 본당 수녀님께서 방문 부탁을 하셨다는 말을 하자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편안하고 밝게 드러내 보이려고 애썼지만 계속되는 구역질과 구토로 많이 지쳐 있는 모습이였다.

매일 매일 이 환자를 방문하며 자신의 고통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고, 이 환자를 방문하고 나면 수도자인 나 자신도 마음의 평화를 얻곤 했다.

여러 만남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보따리 하나를 내 놓으시며 “수녀님! 나 천국갈 때 입을 옷 수녀님께 맡겨 놓을게요. 나는 시신기증을 해서 삼베 수의 대신 하이안 옥양목으로 된 한복으로 했어

요. 천상나들이 옷이랍니다.” 하며 자신이 낮에 죽을지, 밤에 죽을지, 새벽에 죽을지 모르니 나에게 맡겨 놓겠다고 했다. 그 후 원목실 회의실 탁자 난초 옆에는 항상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엘리사벳씨 찾아갈 것”이라는 메모 쪽지와 함께 커다란 보따리가 1달동안 놓여 있었다. 병실 방문 때마다 천상나들이 옷이 잘 있느냐고 하며 밝게 웃으시는 부부의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죽음이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것임을 뻗속까지 새기며,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부부의 모습에 하느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었다.

또 어느 날인가는 미사참석 후 원목실을 방문하여 부부가 함께 수의를 어루만지며 “여보, 나 죽으면 이 옷을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하며 남편에게 설명하시며 환자는 기뻐하셨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남편은 웃음을 지어보이면서 간간히 고개를 돌려 두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내시기도 하였다.

자신의 죽음과 천상나들이 옷을 어루만지며 기도하시는 두 부부의 모습에 그때마다 수도자인 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2월 21일. 제 9차 세계 병자의 날 행사가 한국 가

톨릭 호스피스 협회 주관으로 본 병원 4층 강당에서 1부 미사와 2부 가수 인순이와 함께 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환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인순이 공연이 될 것이라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산소통을 휠체어에 매달고 4층 강당에 참석했다. 1시간 40분 정도를 보고 숨이 차서 봉사자들의 손에 이끌려 마지막 공연까지는 참석하지 못한 환자는 병실에 돌아와서도 계속 즐거워하였고, 호흡곤란으로 인해 땀으로 흠뻑 젖은 전신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봉사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미소를 지어보이셨다.

며칠 후 간호사실에서 환자가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아 마지막 병자성사를 받고 싶어한다는 전화를 받고 신부님께 병자성사를 청해 놓고 호스피스 병실로 찾아 뵈었을 때 남편과 딸, 사위, 손녀가 함께 하고 있었다. 6살된 손녀딸이 할머니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며 울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찡했다. 숨이 차서 호흡하기 어려운 환자를 끌어안고 땀을 닦아드리며 하느님께 자비를 청했다. 그때 신부님께서 병실에 들어오셨다.

신부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환자는 평소에 좋아하던 사탕 신부님이 오셨다는 말에 잠시나마 얼굴이 환해지셨다. 병자성사를 받고 잠깐 동안 신부님과 원목자는 환자의 아픔에 함께 했다. 신부님이 떠나신 후 노자성체를 받아모신 환자와 원목자는 가족들과 기도를 시작했다. 환자는 힘겨운 중에도 원목자가 읽는 임종경에 귀를 기울이며 참회, 믿음, 희망, 사랑 모든 기도문에 환자는 마음을 다하여 함께 했다. 임종기도가 끝난 후 병실을 나왔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밤 12시에 엘리사벳씨가 임종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병실에 가 보니 편안한 모습으로 하느님 품에 안기셨다. 임종 후 기도를 바치고 간호사

들과 사후처치를 함께 한 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수의를 입혀드렸다. 수의를 입으신 환자의 모습은 바로 천사같았다.

가족과 함께 시신을 영안실에 모신 후 수녀원으로 돌아와 잠시 환자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며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와 한 영혼을 하느님 품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보내드렸다는 마음에 위안을 얻었다. 날이 밝아 시신을 기증했기 때문에 강남성모병원 영안실로 향하는 고인에게 가족, 신부님, 수녀님,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관 예절을 드린 후 강남성모병원 엠블런스에 고인과 가족을 떠나보냈다.

다음날 장례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강남성모병원 영안실로 향했다.

영안실에는 가족들과 호스피스 봉사자, 본당 신자들이 연도를 바치고 있었다. 연도를 함께 바친 후 장례미사에 참석했다. 미사강론 중 가톨릭대학교 교목실장 신부님께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몸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시신기증을 하신 엘리사벳 자매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었고,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신 그분의 삶에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우리 모두 기도하자는 신부님의 말씀에 참가자 모두는 숙연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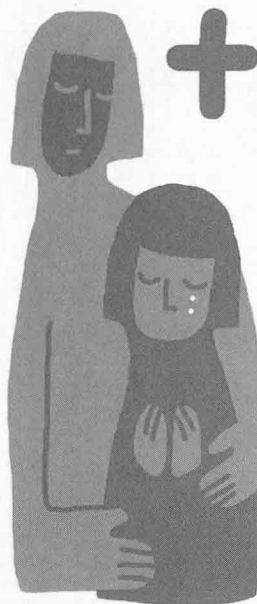
미사가 끝난 후 시신을 안치실로 모시기 전 6살된 손녀딸이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하고 흐느껴 울며 할머니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손녀딸의 모습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눈시울을 적셨다.

나는 시신을 안치실로 모셔다 드리고 가족들과 헤어져 뒤돌아 오는 발걸음이 여느 장례와 다르게 느껴졌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평화가 흐르고 있었다.

엘리사벳씨를 하느님 나라로 떠나보낸 요즈음! 매

일 매일 죽음을 앞둔 말기 암환자들을 만나며 너무나 아름다운 임종이었기에 항상 그림자처럼 엘리사벳씨와 함께 했던 그녀의 남편과 지금은 편안히 하느님 나라에 계실 엘리사벳씨를 그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영원한 안식과 남은 유가족들에게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토막 상식

호스피스에 들어오는 환자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혹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에 힘든 점이 많다.

예를 들어 뇌종양 환자의 경우 질환 자체가 방산 치료의 후유증으로 기억상실, 언어 장애, 지각 장애, 마비 등으로 인해 인격의 변화가 오기도 하고 일상 생활이나 가족과의 의사 소통에도 큰 불편을 느끼게 된다. 또 구토, 식욕부진 등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손떨림이나 마비로 수저를 쓰기 힘들어 진다.

호스피스 환자가 임종 전까지 존엄성을 유지하고 보람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의료 외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현재 영국에서는

호스피스센터마다 occupational therapist(작업 치료사)가 있어 여러 가지 의료 외적인 도움을 주는데 가정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집을 방문하여 환자가 거처할 곳을 살펴보고 필요한 도구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는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이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만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다. 앞으로 발간되는 회지의 토막 상식 난에서 occupational therapist 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가지씩 찾아내어 보고자 한다.

김민정(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부회장)